

석유화학, 양안협력 강화 “긴장”

중국·타이완, 22개 공동건의문 채택 ... ECFA·관세자유화 조기 추진

중국과 타이완이 경제포럼을 열고 석유화학을 비롯한 양안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양국은 제6차 양안(兩岸)경제무역문화포럼에서 양안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22개항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Guangdong의 Guangzhou에서 7월11일 폐막한 제6차 포럼에서 중국과 타이완이 공동건의문을 통해 경제, 무역, 교육, 과학기술, 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7월12일 보도했다.

양국은 건의문을 통해 최근 서명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기관세자유화(조기수확) 조치를 하루빨리 시행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환경보호, IT, BT, 기후변화 대응 등 신형 전략산업을 비롯해 방직, 전자, 정밀기계, 석유화학 등 제조업과 금융, 물류, 관광, 의료 등 서비스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학 등 학위 인증을 조속히 추진하고 공동연구센터 건립도 장려해 교육·연구 분야의 인적 교류도 확대하고 양안 언론간의 지사 등 상설기구 추진도 조속히 추진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6차를 맞는 양안 경제무역문화포럼은 2006년에 처음 시작됐다.

한편, 우보슝 명예주석은 이날 베이징에 도착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마잉주 타이완 총통의 이른바 16자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13>